

금융주와 인터넷주가 반등 견인

항셱지수는 두 달 연속 하락 후 7월 전월 대비 13.2% 반등한 25,884pt 를 기록했다. 2026 년 첫 7개월간 지수는 대체로 보합세를 보였다. 홍콩과 중국의 금융 및 인터넷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시장이 연준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대부분의 블루칩이 8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리서치 블랙아웃 기간에 진입함에 따라 7월 일평균거래대금은 전월 대비 5% 감소한 HK\$3,030억을 기록했다.

항셱금융지수는 12.4% 상승했다. 올해 4분기 미국과 홍콩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HSBC 홀딩스(00005 HK), 중국은행(02388 HK) 등 홍콩 은행들에 긍정적이다. 이 두 은행은 14~23% 상승했다. 중국 은행들도 강세를 보였다.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에 힘입은 건설은행(00939 HK), 공상은행(01398 HK)이 14~27% 급등했다.

항셱상업지수는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 중국 인터넷주의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주가 반등으로 이어졌다. 메이투안(03690 HK), 샤오미(01810 HK), 징둥(09618 HK), 알리바바(09988 HK)가 26~35% 상승했다. 반면 IT 주들은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장 우려로 압박을 받았다. SMIC (00981 HK), CATL (03750 HK), 순우광학테크(02382 HK)는 8~29% 하락했다.

항셱부동산지수도 전월 대비 7% 상승했다. 미국 금리인상은 4Q26은 되어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기부동산(00016 HK)과 항공조업부동산(00012 HK)는 10~14%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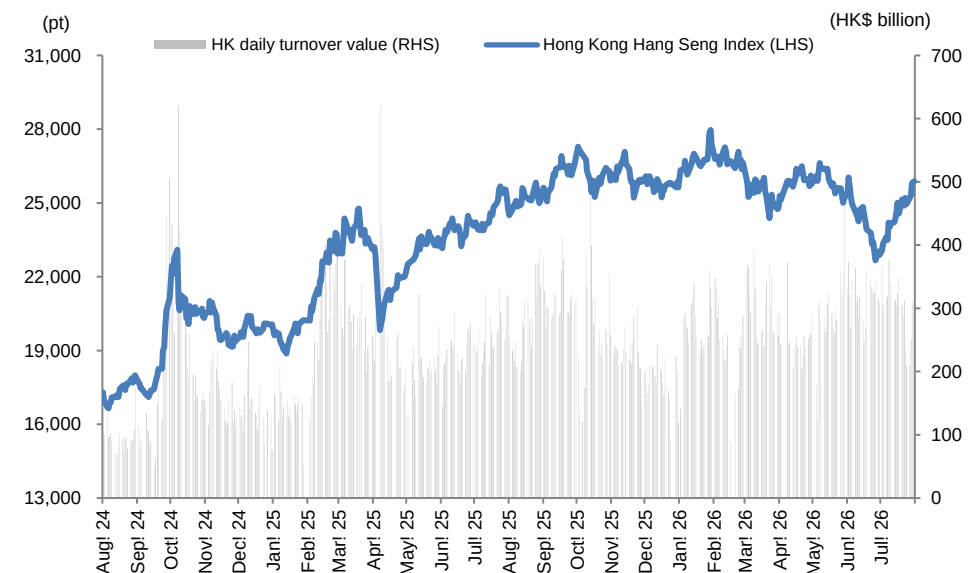
8월 시장의 관심은 중동지역에서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후 실적발표에 집중될 전망이다. 양호한 제품 수요와 활발한 주식시장 거래에 힘입어 금융주와 기술주는 견조한 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비재 기업은 6월의 잦은 강우와 늦은 춘절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 예이 따라 7월 중 부진했던 기술주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주요 매크로 지수 (홍콩/중국)

발표일	지표	수치
7월 1일	중국 6월 RatingDog 종합 PMI	51.7
7월 2일	홍콩 5월 소매판매액 증가율	7.9%
7월 3일	중국 6월 RatingDog 서비스업 PMI	54.1
7월 14일	중국 6월 수출	27.0%
7월 9일	중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	4.1%
7월 9일	중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0%
7월 15일	중국 6월 산업생산	5.3%
7월 17일	홍콩 5월 실업률, 3개월 평균	3.7%
7월 15일	중국 6월 소매판매	1.0%
7월 15일	중국 6월 조사실업률	5.0%
6월 23일	홍콩 6월 종합 소비자물가지수(CPI)	2.0%
6월 25일	홍콩 6월 수출	53.4%
7월 31일	중국 7월 제조업 PMI	49.2%
7월 31일	중국 7월 비제조업 PMI	49.0%

자료: Bloomberg, Yuenta Investment Consulting

항셱지수 수익률



주: 발간일 2026.08.07

자료: Yuenta Investment Consulting